

영암군민속씨름단, 백두·한라장사 거머쥘다

제천의병장사씨름대회

김민재 통산 6번째 백두장사

차민수도 6번째 한라장사 등극

영암군민속씨름단이 제천의병장사씨름대회에서 장사 2명을 배출했다.

김민재는 30일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열린 위더스제약 2023 민속씨름 제천의병장사씨름대회 백두급(140kg 이하) 결승전(5판3승제)에서 김진(증평군청)을 3-1로 꺾고 통산 6번째 백두장사 타이틀을 거머쥘었다.

8강에서 윤성희(동작구청)를 연속 들배지기로 제압한 김민재는 준결승에서 차승진(구미시청)을 상대로 첫판 밀어치기를 성공했지만 잡채기를 내줬다.

마지막 판 김민재가 왼배지기에 성공해 2-1로 장사 결정전에 진출했다.

김민재는 장사결정전에서 김진에 먼저 들배지기를 허용했으나 잡채기로 우승해 균형을 맞췄다.

이어 밀어치기와 배지기에 연속 성공해 정상에 등극했다.

차민수도 제천의병장사씨름대회에서 통산 6번째 한라장사에 등극했다.

차민수는 29일 한라장사(105kg 이하) 결정전(5판3승제)에서 김승현(제주특별자치도청)을 3-0으로 이겨 정상에 올랐다.



백두장사에 오른 김민재



한라장사에 오른 차민수

8강에서 박민교(용인특례시청)를 뒤집기와 발다리로 눌러 2-0으로 준결승에 오른 차민수는 최정훈(태안군청)을 상대로 안다리와 잡채기를 사용하여 2-0으로 결승에 진출했다.

차민수는 첫판 들배지기를 성공시키며 기선을 제압했고, 두 번째 판은 발다리, 세 번째 판은 밀어치기로 연이어 상대를 눌러 최종 3-0으로 한라급을 제패했다.

한편, 최정만은 금강장사(90kg 이하) 결정전에서 문형석(수원특례시청)에게 1-3으로 패해 2위에 머물렀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한국펜싱 남자 사브르 단체전 세계선수권대회 5연패 실패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5연패를 눈앞에서 놓치며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오상욱(대전광역시청), 구본길(국민체육진흥공단), 김준호(화성시청), 하한솔(성남시청)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28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열린 2023 세계선수권대회 단체전 결승에서 헝가리에 42-45로 겨 준우승했다.

한국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2017, 2018, 2019년, 그리고 지난해까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단체전 패권을 지켜왔으나 이번엔 헝가리에 넘어졌다.

2020년과 2021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세계선수권대회가 개최되지 않았다.

이번 단체전에서 한국은 32강전부터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중국, 미국을 차례로 격파하며 결승 진출에 성공했다. 중국과의 8강전(45-40) 정도를 제외하면 모두 10점 차 넘는 대승을 거뒀다.

하지만 2021년 도쿄 올림픽을 포함해 3회 연속 올림픽 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건 아론 실라지를 앞세운 헝가리와의 결승전에서 아쉬운 재역전패를 떠안았다.

헝가리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세계선수권대회 남자 사브르 단체전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 단체전 사상 첫 우승을 달성했던 여자 에페 대표팀은 이번 대회에선 결승에 오르지 못한 채 동메달을 따냈다. 송세라(부산광역시청), 최인정(계룡시청), 강영미(광주시 서구청), 이혜인(강원도청)이 출전한 한국은 폴란드와의 준결승전에서 32-33으로 석패한 뒤 3·4위전에서 스위스를 45-32로 제압했다.

/연합뉴스

안세영 '또 우승이야'

일본오픈 제패...2주 연속 국제대회 우승



안세영이 3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오픈 배드민턴대회 여자단식 결승에서 중국의 허빙자오를 꺾고 우승한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자복식 김소영-공희용도 우승

한국 여자 배드민턴의 간판 안세영(삼성생명)이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에서 우승했다.

세계랭킹 2위 안세영은 3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대회 여자 단식 결승전에서 세계 5위 허빙자오(중국)를 2-0(21-15 21-11)으로 제압했다.

지난 23일 코리아오픈 2연패를 달성했던 안세영은 여세를 몰아 2주 연속 국제대회 정상에 올랐

다. 올해 7번째 금메달이다.

이날 안세영은 허빙자오를 상대로 물 쉴 틈 없는 철벽 수비와 절묘한 공격을 펼치며 완승했다.

안세영은 32강부터 이어진 5경기에서 한 세트도 지지 않고 모두 2-0 승리를 거두는 기염을 토했다.

최대 경쟁자인 세계 1위 아마구치 아카네(일본)와 3위 천위페이(중국)는 각각 8강과 16강에서 일찌감치 탈락했다.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따르면 안세영은 이번 우승으로 세계랭킹 포인트 10만4064점을 쌓아 야마

구치(10만4517점)를 턱밑까지 추격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날 여자복식에서는 김소영(인천국제공항)-공희용(전북은행)이 승전보를 알렸다.

세계랭킹 3위 김소영-공희용은 결승전에서 세계 1위 천칭천-자이판(중국)을 2-0(21-17 21-14)으로 꺾었다.

상대 전적 4승 10패의 열세를 뚫고 지난해 코리아오픈 결승전 패배를 일주일 만에 시원하게 설욕했다. /연합뉴스



시퍼퍼스 박은서(왼쪽)가 29일 경상북도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구미·도드람컵 여자부 개막전(A조 1차전) 도로공사와 경기에서 스파이크 하고 있다. <KOVO 제공>

페퍼스, 컵대회 개막전 도로공사에 1-3 패

'국대' 박정아 출전 안해

광주 시퍼퍼스가 2023 구미·도드람컵 프로배구 대회 개막전에서 패배했다.

페퍼저축은행은 광주 시퍼퍼스가 지난 29일 경상북도 박정희체육관에서 열린 구미·도드람컵 여자부 개막전(A조 1차전)에서 한국도로공사에 세트스코어 1-3(17-25, 25-21, 23-25, 22-25)으로 졌다.

페퍼스는 구단 처음으로 컵대회에서 한 세트를 따냈다. 하지만, 전년 대회 3전 전패 이후 이번 대회에서도 첫승을 올리지 못했다.

조 트린지 페퍼스 감독은 데뷔 첫 승을 다음 경기로 미뤘다. 페퍼스는 31일 현대건설과 격돌한다.

이번 개막전은 페퍼스 유니폼을 입은 박정아의 데뷔전으로 주목받았으나 출장하지 않았다. 부상으로 지난 시즌 뛰지 못했던 하혜진이 4세트를 소화하는 등 복귀전을 성공적으로 치렀다.

페퍼스는 이날 이한비(19점)와 박은서(22점)의 활약으로 2세트를 따냈다. 박은서는 양팀을 통틀어 최고 득점을 올렸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하지만 승부처였던 3세트를 내주면서 급격하게 무너졌다. 3세트 20-24에서 페퍼저축은행은 박은서가 3연속 득점을 해 23-24까지 추격했다. 도로공사 미들 블로커 배나나의 공격을 연거푸 수비로 견어 올리며 듀스로 끌고 갈 기회를 얻기도 했다.

결정적인 고비에서 박은서의 오픈 공격이 불발되고 도로공사 전세안의 오픈 공격을 막아내지 못해 3세트를 25-23으로 끝냈다.

페퍼스는 4세트 16-24에서 22-24까지 맹추격했지만, 리베로 문슬기가 끌어 올린 공을 다른 선수들이 미루며 받지 못해 22-25로 4세트를 허무하게 내줬다. 불안한 수비에다가 토스가 네트에 바짝붙으면서 공격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등 손발이 안맞는 플레이도 발목을 잡았다.

조 트린지 감독은 이날 전위에서 후위 공격을 적극 시도하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아시아쿼터로 페퍼스가 영입한 엠제가 필립스와 외국인 선수 야스민도 출장하지 않아 순수 국내 선수로만 멤버가 꾸려졌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1관	밀수
2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바비
3관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PART ONE, 명탐정코난: 흑철의 어영, 틴에이지 크라켄 루비
4관	밀수
5관	엘리멘탈
6관	밀수
9관	밀수
7관 씨네카를	명탐정코난: 흑철의 어영, 인시디어스: 빨간 문, 여름날 우리
8관 씨네카를	바비, 인시디어스: 빨간 문, 헌티드 맨션, 메타모르포제의 빛마루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기획공연 포시즌 미디어아트 뮤지컬 파랑새
일시: 2023-08-24(목)-25(금) 19:3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5



GAC 재개관 시리즈 - 포시즌즈 '정트리오 콘서트'
일시: 2023-08-26(토) 17:00
장소: 광주예술의전당 대극장
문의: 062-613-8235



즐거움 문화산책

